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민주적 양육태도 및 교사와의 관계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에서 자기조절학습능력의 장기적 매개효과 분석

The Long Term Mediating Effects of Self-regulated Learning in the Relationships among the Perceptions of Middle School Students on the Democratic Attitude of Parenting and their Relationships with Teachers, and their Self-esteem

김현진

서울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학과

Hyunjin Kim(hjinkim71@gmail.com)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민주적 양육태도 및 교사와의 관계가 자신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자기조절학습능력이 매개효과를 가지는지와 이러한 관계가 장기적 효과를 가지는지를 확인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한국아동청소년패널(KCYPS) 중에서 중학교 1학년 패널의 1차년도(2010년)와 3차년도(2012) 자료를 활용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학생들이 지각한 부모의 민주적 양육태도는 동일 년도에 학생들의 자아존중감을 직접적으로 뿐만 아니라, 자기조절학습능력을 매개로 간접적으로도 예측하였다. 둘째, 교사와의 친밀한 관계 인식은 자기조절학습능력을 매개로 하여 간접적으로 자아존중감을 예측하였다. 마지막으로 1학년 때의 이러한 관계 패턴은 2년 후인 3학년 때의 자아존중감을 예측하는 과정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청소년의 주요 발달과업인 자아존중감의 향상에 해당 변인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 중심어 : | 민주적 양육태도 | 교사와의 관계 | 자기조절학습능력 | 자아존중감 | 장기적 매개효과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long term mediating effects of Self-regulated Learning(SRL) in the Relationships among the Perceptions of Middle School Students on the Democratic Attitude of Parenting(DAP) and their Relationships with Teachers(RT), and their Self-esteem(SE). The data sources were from the first (2010) and the third (2012) Korean Children & Youth Panel Survey(KCYPS). As a result, first, the perceived DAP had significant effects on the students' SE both directly and indirectly through SRL. Second, the perception on RT had indirect effects on their SE mediated by SRL. Third, this pattern in first year continued in two-year-later-SE. This study implies that DAP, RT, and SRL play important roles in the continuous development of adolescents' self-esteem.

■ keyword : | Democratic Attitudes of Parenting | Relationships with Teachers | Self-regulated Learning Skills | Self-esteem | Long Term Effects |

1. 서론

자아존중감(Self-esteem)은 자신이 능력 있고 중요하며, 가치 있는 존재라고 믿는 정도로서 자신에 대한 지속적인 긍정적 자기평가이며, 가치판단이라고 정의된다[1][2].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잘 파악하고, 자신의 모습 그대로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 또한 자신의 판단이나 능력을 믿으며, 어려운 상황에 처해도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는다. 반면에 자아존중감이 낮은 사람은 자신의 약점에 더욱 집착하고, 자신의 판단에 자신감이 없으며, 도전적이지 못하다[3]. 이처럼 자아존중감은 사회생활과 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이라고 할 수 있다.

발달적 관점에서 자아존중감을 살펴보면 아동기 말기가 되면서 급격한 신체적, 심리적 변화를 경험하면서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형성되고 이로 인해 이전의 안정적이던 자아존중감의 저하가 발생하게 된다[4]. 청소년들의 경우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은 그들의 학습 동기나 태도, 이후의 학업성취와 진로 의식의 발달, 그리고 또래들과의 안정적인 대인관계 형성과 유지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5][6]. 또한 이경아와 정현희[7]에 따르면 청소년기의 낮은 자아존중감은 우울증과 같은 정신건강과도 관련이 있어 보인다. 따라서 발달적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차원에서 청소년들의 낮아진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는 것은 교육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일 것이다.

일반적으로 자아존중감은 타고난 개인적 기질이라고 보다 주어진 환경 속에서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발달하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적절한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는 적절한 환경 제공자로 부모 및 교사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이들은 청소년들이 생활하는 주요 물리적 환경인 가정과 학교의 책임자로서 그들의 자녀에 대한 반응과 태도는 학생들이 자신에 대한 평가를 내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예측된다.

먼저 부모의 온정적이고 수용적인 양육태도는 자녀

의 자아존중감과 깊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8]. 특히 부모의 민주적 양육태도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9][10]. 부모의 민주적 양육태도는 자녀에 대해 애정을 가지고 그들의 일과 변화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며 갈등 상황에서 통제적이거나 억압하지 않고 대화와 설득을 통해 해결하나 규칙들에 있어서는 단호한 태도를 보이는 것을 말한다[11]. 일상생활 속에서 부모의 자녀에 대한 태도는 자신에 대한 주요 평가기준으로 이것이 내면화되면서 자신의 가치를 결정하는 중요한 잣대가 되는 것으로 보인다[8]. 박성연과 이은경[12]의 연구에 따르면 부모가 자녀에게 보이는 합리적 지도와 한계, 온정적 태도, 개방적 의사소통 등의 태도는 자아존중감과 높은 직접적인 정적인 관계를 보였다.

교사 또한 학생들에게 있어 주요한 타인으로 이들로부터 지지를 받는다는 느낌은 한창 자아정체성을 형성하는 시기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자신과 자신의 삶에 대한 안정감과 긍정적인 태도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인다. 교사와의 긍정적인 관계는 교사가 학생들이 학습 및 학교생활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지지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7].

학업장면 뿐만 아니라 학교생활에서의 교사와의 공감적이고 친밀한 관계는 학생들의 학교 및 사회적 측면에서의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보인다[13][14]. 신호정과 최현주[14]의 연구는 중학교 1학년에서 3학년으로 그들의 자아존중감이 발달하는 과정에서 부모의 애정과 긍정적인 교사와의 관계가 중요한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을 보였다. 특히 부모와의 관계는 모든 연령대에 있어 자아존중감의 발달에 중요한 요소이지만 교사와의 긍정적인 관계는 중학생이 되면서부터 자아존중감의 발달에 중요한 요소가 된 것으로 보고되었다.

한편 민주적 양육태도와 교사와의 긍정적인 관계 형성은 청소년기 학생들의 자아존중감에 직접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가질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주된 과업이라고 할 수 있는 학습상황에서 자기조절학습능력을 증진시킴으로써 간접적으로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기대된다.

자기조절학습능력(self-regulated learning)은 학습자가 스스로 학습의 목표를 설정하고, 학습의 과정에서 높은 학습동기를 유지하고, 학습의 과정 및 결과를 평가하며, 인지 및 행동조절 전략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15]. 효과적인 자기조절학습자는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좌절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으며 다양한 학습전략을 활용하여 궁극적으로 그 목표를 달성해내는 이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자기조절학습능력은 청소년기에 중요한 발달과업이라고 할 수 있는 학습장면에서의 성취를 이루며 자아존중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16].

부모의 민주적 양육태도는 자기조절학습능력을 발달 시킴으로써 자녀의 자아존중감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즉 자녀의 학습에 대한 부모의 합리적인 설명과 한계, 개방적이고 강압적이지 않는 의사소통과 깊은 관심은 자녀들로 하여금 자신의 학습에 대한 독립심과 책임감을 증진시키고 학습과제에 대해 도전적인 태도를 보이며 그 과제에 몰입할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보인다[17]. 실제로 많은 선행연구들에서 부모가 민주적인 양육태도를 보일수록 자녀의 자기조절학습능력 수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18-20]. 특히 임선아[9]의 연구에 따르면 부모가 민주적 양육태도를 보일수록 초등학교 4학년 자녀의 자기조절학습능력이 향상되고 결국 학교적응을 돕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김동일 등[21]의 연구에서도 고등학생들은 자신의 부모가 자율적인 양육태도를 보일수록 더 높은 인지 및 행동조절전략을 사용하며 학업지연 수준이 낮은 것으로 보고했다.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태도가 그들의 자기조절 학습력의 37%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2].

한편 긍정적 교사-학생관계 또한 학생들의 자기조절 학습능력을 향상시켜 결국 그들의 자아존중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교사와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하며 학습 방법을 모델링하고 교사들로부터 다양한 학습전략을 습득하게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교사는 학생들의 자기조절학습능력의 향상에 도움을 줄 것이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중학생들이 자신과 교사의 관계가 긍정적이라고 느끼는 경우 더

높은 자기조절학습전략의 사용과 높은 학업성취를 나타내었다[23]. 최진아[20]의 연구는 청소년의 자기조절 학습 능력에 있어 부모의 민주적인 양육태도보다 교사와의 관계가 더 많은 설명력을 가지는 것을 보고하기도 했다. 즉 학생들은 교사와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고 생각할수록 성취와 배움 그 자체에 더 많은 가치를 부여하고 자신의 행동을 더 잘 통제하며 학습의 과정에서 시간을 더 잘 관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렇게 향상된 자기조절학습능력은 장기적으로 학습자들의 학업성취를 높이고 자아존중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24].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기반으로 볼 때 부모의 민주적 양육태도와 교사와의 친밀한 관계가 학생들의 자아존중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자기조절 학습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그들의 학업적 측면에서의 성취를 이끌어 간접적으로 자아존중감을 높이는 효과를 가질 것으로 예측해볼 수 있다. 그러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부모와 교사의 영향을 통합적으로 살핀 선행 연구들은 거의 없으며, 기존의 연구들은 부모나 교사와의 관계가 학생의 자아조절학습능력에 미치는 영향 [18][23]이나 학습자의 자기조절학습능력이 그들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16]만을 봄으로써 이들 변인간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살핀 연구는 없었다. 이에 본 연구는 부모 및 교사와의 관계가 자녀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조절학습능력의 매개효과를 살펴봄으로써 이들 간의 관계를 통합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더 나아가 자기조절학습능력과 자아존중감이 부모 및 교사와의 오랜 시간에 걸친 상호작용을 통해 발달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특정 시점에서 학생들이 지각한 민주적 양육태도와 교사와의 관계가 시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학생들의 자기조절학습능력 및 자아존중감을 유의미하게 예측하고 매개하는 지를 살펴봄으로써 이들의 지속적인 영향의 정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자기조절학습능력의 장기적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제공하는 아동청소년 관련 종단 자료를 활용하였다. 종단적 영향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최소 1차 년도부터 3차 년도 자료와 같이 3년간의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그러나 2차 년도 자료에는 본 연구에서 다루는 변인을 포함하지 못하여 중단적인 효과를 검토하는 대신 2차 년도를 제외한 1차 년도에서 3차 년도까지의 장기적인 매개효과를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미래 지향적인 교육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기 위해 부모와 교사는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할지에 대한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중학교 1학년 때 학생들이 지각한 부모의 민주적 양육태도와 교사와 관계가 학생들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자기조절학습능력이 매개하는가?
2. 중학교 1학년 때 학생들이 지각한 부모의 민주적 양육태도와 교사와 관계가 중학교 3학년 때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자기조절학습능력이 매개하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한국 아동청소년패널(KCYPS) 중에서 2010년 1차 년도(1학년)와 2012년 3차 년도(3학년) 자료수집에 모두 참여한 중학교 3학년의 패널 자료를 활용하였다. 장기적 매개효과를 보기 위해 1차 년도 자료 중 부모의 민주적 양육태도, 교사관계, 자기조절학습 능력과 자아존중감 변인을 활용했으며 3차 년도 자료 중 자기조절학습능력과 자아존중감을 활용했다. 연구 대상의 인구통계학적 분포는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분포(%)

성별		전체	학교	지역
남	여			
1176(50.0)	1175(50.0)	2351	전국 78개 중학교 1학년 각 1개 학급	5대 광역시 8개 시·도

2. 측정도구

본 연구의 측정도구들은 한국 아동 청소년 패널에서 사용된 변인들 중 양육방식과 교사관계, 자아존중감 그

리고 자기조절학습능력을 측정하는 척도를 활용하였다. 모든 측정도구들은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2.1 민주적 양육태도

부모가 보이는 민주적 양육태도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허묘연[25]이 개발한 부모양육태도 검사에서 관심(3문항 “내가 방과 후에 어디에 가는지 알고 계신다” 등), 애정(4문항, “나의 의견을 존중해 주신다” 등), 합리적 설명(3문항, “부모님(보호자)의 결정을 무조건 따르게 하기 보다는 왜 그래야 하는지 설명해 주신다” 등)으로 민주적 양육태도와 관련된 영역을 포함했다. 본 척도의 6개의 하위요인 중에서 이 세 요인은 부모의 합리적 설명과 개방적인 의사소통과 관심을 포함하는 민주적 양육태도로 주로 정의되며 선행연구들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명명되어 적용된바 있다[9][18]. 본 10문항의 내적합치도(Chronbach α)는 .85(1차)이며, 관심 .76, 애정 .82, 합리적 설명 .74이었다.

2.2 교사관계

교사와의 관계를 측정하기 위해 민병수[26]가 제작한 학교생활적응 척도 중 교사관계에 해당하는 5개 문항(예: “선생님과 이야기하는 것이 편하다” 등)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교사와의 긍정적인 관계 정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내적합치도는 .83(1차)이다.

2.3 자기조절학습능력

자기조절학습능력의 측정은 양명희[27]가 개발한 자기조절학습능력 검사를 김세영[28]이 요인분석을 통해 재구성한 측정도구를 사용했다. 이 검사는 학습 태도를 포함하는 동기조절과 행동조절 문항으로 성취가치(7문항, “학교공부는 나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등), 숙달목적지향(2문항, “나는 실수를 하더라도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는 어려운 내용을 좋아한다” 등), 행동통제(5문항, “나는 공부가 지루하고 재미없더라도 끝까지 다 한다” 등), 학업시간관리(4문항, “나는 효율적으로 공부하기 위해 시간계획을 세운다”)의 4개의 하위척도로 총 18문항이다. 본 측정도구의 내적합치도는 .91(1차)과 .90(3차)이며, 성취가치 .89(1차), 숙달목적지향 .71(1차),

행동통제 .71(1차), 학업시간관리 .86(1차)이었다.

2.4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해 Rosenberg[29]가 개발하여 고려대학교 행동과학연구소[30]에서 번안한 자아존중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검사는 자신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지니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도구로서 긍정적인 태도를 묻는 긍정적 자아존중감 5문항(예: “나는 내가 장점이 많다고 느낀다” 등)과 부정적 태도를 묻는 부정적 자아존중감 5문항(예: “때때로 나는 내가 쓸모없는 존재로 느껴진다” 등)의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정적 자아존중감은 역채점을 하였으며, 본 검사에서 높은 점수는 자아존중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측정도구의 내적합치도는 .84(1차)와 .82(3차)이며, 긍정적 자아존중감 .86(1차), 부정적 자아존중감 .83(1차)이었다.

3. 연구절차 및 분석방법

연구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토하기 위해 측정도구에 대한 기술통계치와 상관관계, 신뢰도 계수를 산출하였다. 1차 년도에서 민주적 양육태도 및 교사관계와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에서 자기조절학습능력의 매개효과와 2년 후의 자기조절학습능력의 장기적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측정도구의 구인타당성 검증을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했다. 결측치는 EM 방법을 통해 처리하였고, 모형검증을 위한 적합도 지수는 χ^2 검증과 더불어 홍세희[31]가 제시한 비교부합치(CFI > .90), 비표준 부합치(TLI > .90), 표준부합치(RMSEA < .08) 기준을 적용하였다.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Bootstrapping 방법을 활용하였다. 통계처리를 위해 SPSS21.0과 Amos21.0을 사용했으며 .05의 유의성 수준에서 결과를 해석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주요 변인들의 기초통계 분석 결과

표 2. 주요 변수들의 기술통계치 및 상관

	민주적 양육태도 (1)	교사관계 (1)	자기조절학습능력 (1)	자기조절학습능력 (3)	자아존중감 (1)	자아존중감 (3)
민주적양육태도	-					
교사관계	.33**	-				
자기조절학습능력(1차)	.41**	.45**	-			
자기조절학습능력(3차)	.26**	.27**	.50**	-		
자아존중감 (1차)	.37**	.24**	.37**	.24**	-	
자아존중감 (3차)	.28**	.17**	.22**	.31**	.51**	-
평균	2.96	2.71	2.66	2.65	2.79	2.82
표준편차	.54	.67	.49	.48	.51	.45
왜도	-.38	-.16	-.01	-.02	-.22	.17
첨도	.31	-.12	.38	.60	.07	.12

주. * $p < .05$, ** $p < .01$, $n = 2351$

주. (1) 중학교 1학년(1차년도), (3) 중학교 3학년(3차년도)

주요 변수들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표 2]와 같이 민주적 양육태도와 친밀한 교사관계는 학생들의 1차와 3차의 자기조절학습능력 및 자아존중감에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또한 자기조절학습능력은 자아존중감(1차, 3차)과 유의미한 긍정적 관계를 보였다. 그리고 자기조절학습능력과 자아존중감은 각각 1차와 3차 점수 간에 각각 .50과 .51의 정적상관을 보였다.

2. 매개모형의 측정모형과 구조모형 검증

2.1 측정모형 검증

먼저 측정변인들이 잠재변인을 적절히 구인하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했다. 초기 측정모형의 적합도는 $\chi^2=3276.08$, $df = 203$, $p=.00$, $CFI=.85$, $TLI=.83$, $RMSEA =.08$ 로 양호하지 못했다. 따라서 MI(Modification indices, 수정지수)를 기반으로 10개의 자아존중감 문항 중 확인적 요인분석에서 매우 낮은 경로계수를 보인 8번째 문항(-.15)을 제거하였다. 이 문항은 “나는 나를 좀 더 존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로 피험자의 관점에서 현재 자신을 존중하지만 좀 더 존중하

고 싶다는 것인지 자신을 존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 존중하고 싶다는 의미인지 분명하지 않아 신뢰도가 낮은 것으로 판단되어 해당 문항을 제거하였다.

표 3. 확인적 요인분석 경로계수 분석(1차 년도)

구분	관찰변인	표준화 계수	S.E.	C.R.
민주적 양육태도	관심	.49**	.03	21.44
	합리적 설명	.72**	.03	28.69
	애정	.87**		
교사관계	교사관계1	.67**	.04	22.96
	교사관계2	.78**	.05	24.87
	교사관계3	.81**	.05	25.16
	교사관계4	.65**	.03	29.79
	교사관계5	.55**		
자아 존중감	자아존중감1	.66**		
	자아존중감2	.49**	.04	20.85
	자아존중감3	.74**	.03	30.24
	자아존중감4	.68**	.03	27.97
	자아존중감5	.58**	.03	24.53
	자아존중감6	.52**	.04	22.21
	자아존중감7	.75**	.03	30.42
	자아존중감9	.45**	.03	19.26
	자아존중감10	.70**	.03	28.96
	성취가치	.70**		
자기조절 학습전략	숙달목적지향성	.72**	.05	27.65
	행동통제	.64**	.03	24.97
	학습시간 관리	.58**	.04	22.91

주. * $p < .05$, ** $p < .01$, $n = 2351$

또한 MI지수와 문항 간에 사용된 어휘들의 유사성을 고려해 8개의 오차변인의 상관을 추가하였다. 그 결과 최종 측정모형의 적합도는 $\chi^2=881.77$, $df=175$, $p=.00$, $CFI=.96$, $TLI=.96$, $RMSEA=0.04$ 로 양호했다. 최종 모형에서 측정변인의 경로계수는 다음 [표 3]과 같다.

2.2 구조모형 검증

민주적 양육태도와 친밀한 교사와의 관계가 자아존중감을 예측하는 과정에서 자기조절학습능력이 매개효과를 보이는지를 검증한 결과 최종 모형의 적합도는 $\chi^2=881.77$, $df=175$, $p=.00$, $CFI=.96$, $TLI=.96$, $RMSEA=0.04$ 의 양호한 수준이었다[그림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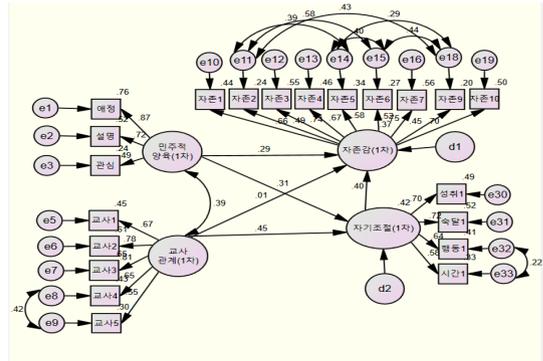


그림 1. 매개 구조 모형(1차 년도)

중학생들이 지각한 부모의 민주적 양육태도는 그들의 자신의 자기조절학습능력(.31) 및 자아존중감(.29)과 유의미한 정적관계를 보였다. 즉 부모가 민주적인 양육태도를 보일수록 자녀의 자기조절학습능력(과 자아존중감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학생들이 지각한 교사와의 긍정적인 관계는 학생들의 자기조절학습능력(.45)과는 정적관계를 가졌지만 자아존중감(.01)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었다. 한편 학생들이 지각한 민주적 양육태도와 교사관계는 자기조절학습능력 총 변량의 42%, 자아존중감의 37%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주요 잠재변수 간 직·간접효과 및 총효과 분석

경로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민주적 양육태도→자기조절학습능력	.23	.32**	-	-	.23	.32**
교사관계 → 자기조절학습능력	.33	.45**	-	-	.33	.45**
민주적 양육태도 → 자아존중감	.30	.29**	.13	.13**	.42	.42**
교사관계 → 자아존중감	.01	.01	.18	.18**	.19	.19**
자기조절학습능력 → 자아존중감	.56	.40**	-	-	.56	.40**

주. * $P < .05$, ** $P < .01$, 1차 년도 자료

민주적 양육태도 및 교사관계가 자아존중감을 예측하는 과정에서 자기조절학습능력이 매개효과를 가지는지를 분석한 결과 표 4와 같이 민주적 양육태도는 자아

존중감과 직접적으로 관련될 뿐만 아니라 자기조절학습능력을 통해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친밀한 교사관계는 자아존중감 수준을 직접적으로 예측하지는 못했지만 자기조절학습능력을 통해 간접적으로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장기적 매개모형의 구조모형 검증

중학교 1학년 때 학생들이 지각한 민주적 양육태도와 친밀한 교사관계의 정도가 3학년 때의 자아존중감을 예측하는 과정에서 3학년 때의 자기조절학습능력이 매개효과를 가지는지에 대한 구조모형을 검증한 결과 모형 적합도는 $\chi^2=933.03$, $df = 175$, $p=.00$, $CFI=.96$, $TLI=.951$, $RMSEA=0.04$ 로 양호하였다[그림 2].

중학교 1학년 때 학생들이 지각한 부모의 민주적 양육태도는 3학년 때 그들의 자기조절학습능력(.19) 및 자아존중감(.19)과 여전히 유의미한 정적관계를 보였다. 즉 자신의 부모가 민주적인 양육태도를 보인다고 느낄수록 2년 후의 자기조절학습능력과 자아존중감도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학교 1학년 때 지각한 당시 교사와의 긍정적인 관계는 2년 후 학생들의 자기조절학습능력(.27)과 정적관계를 가졌지만 자아존중감(.02)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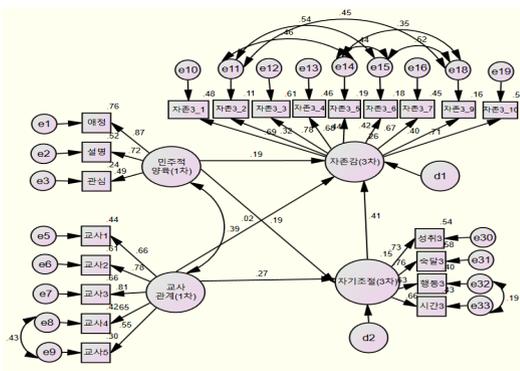


그림 2. 장기적 매개 구조모형(1차 및 3차 년도)

한편 중학교 1학년 때 학생들이 지각한 민주적 양육태도와 교사관계는 3학년 때 그들의 자기조절학습능력과 자아존중감 총 변량을 각각 15%와 26%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학년 때 설명했던 변량(각각

42%, 37%)보다 낮은 비율이다.

표 5. 주요 잠재변수 간 직·간접효과, 총효과 분석

경로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비표준 회계수	표준화 계수	비표준 회계수	표준화 계수	비표준 회계수	표준화 계수
민주적양육태도 (1차) → 자기조절학습능력 (3차)	.14	.19**	-	-	.14	.19**
교사관계(1차) → 자기조절학습능력 (3차)	.21	.27**	-	-	.21	.27**
민주적 양육태도(1차)→ 자아존중감(3차)	.16	.19**	.07	.08**	.23	.27**
교사관계(1차) → 자아존중감(3차)	.02	.02	.10	.11**	.11	.13**
자기조절학습능력 (3차) → 자아존중감(3차)	.46	.42**	-	-	.46	.42**

주. * $p < .05$, ** $p < .01$, 1차 및 3차 년도

1학년 때 지각한 부모의 민주적 양육태도 및 교사관계 정도가 3학년의 자아존중감을 예측하는 과정에서 자기조절학습능력이 매개효과를 가지는지를 분석한 결과 [표 5]와 같이 민주적 양육태도는 자아존중감을 직접적으로 뿐만 아니라 자기조절학습능력을 통해 간접적으로 설명하였다. 한편 학생들이 1학년 교사에게서 인식한 친밀한 교사관계는 2년 후 그들의 자아존중감 수준에 직접적인 효과를 가지지는 못했지만 향상된 자기조절학습능력을 통해 간접적으로 예측하였다.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이 지각한 바, 부모의 민주적 양육태도, 교사와의 긍정적인 관계가 이들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주는 과정에서 자기조절학습능력이 매개효과를 가지는지, 그리고 이러한 영향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후에도 유효한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아동청소년패널(KCYPS)의 1차와 3차 년도의 자료를 활용하여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중학생들이 지각한 부모의 민주적 양육태도는 자아존중감을 직접적으로 뿐만 아니라 자기조절학습능력을 통해 간접적으로 예측하였다. 반면, 학생들이 지각한 친밀한 교사관계는 자기조절학습능력을 통해 간접적으로 자아존중감을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의 양육태도는 학생들의 자기조절학습 능력뿐만 아니라 자아존중감에 직접, 간접적으로 모두 영향을 미치는 반면, 교사와의 관계는 학생들의 자기조절학습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자아존중감을 높이는 방식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중학교 1학년 때 지각한 민주적 양육태도 및 친밀한 교사관계가 3학년 때 자아존중감을 직·간접적으로 예측하는지를 확인한 결과 첫 번째 연구 결과보다 설명력이 낮아지긴 했지만, 1학년 때 학생들이 지각한 부모의 민주적 양육태도는 3학년 때 그들의 자아존중감을 여전히 직접적으로 유의미하게 예측하였으며 자기조절학습능력을 통해 간접적으로 자아존중감을 향상시켰다.

한편 학생들이 1학년 때 지각한 당시 교사와의 긍정적인 관계는 3학년 때 그들의 자아존중감을 직접적으로 예측하지는 못했지만 자기조절학습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자아존중감을 높이는 간접효과를 나타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앞의 첫 번째 결과와 동일한 것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부모의 자녀에 대한 통제가 아닌 합리적 설명과 관심 및 애정을 포함하는 민주적 양육태도는 자녀들이 그것을 자신에 대한 존중과 가치로 내면화하게 됨으로써 자신의 자아존중감을 직접적으로 높인다고 본 선행연구와 맥락을 같이한다[12][14]. 또한 민주적 양육태도는 학업 상황에서 책임감과 자율성을 증진시킴으로써 자신만의 자기조절학습기술과 능력을 증진시키는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업에서의 성공경험이 자아존중감에 긍정적으로 기여한다는 선행연구 결과들과도 유사하다[9][16]. 본 연구의 결과는 부모의 민주적 양육태도가 현재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도 자기조절학습능력과 자존감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보여줌으로써 부모와의 민주적인 상호작용의 중요성을 확인시켜준다.

한편 학생들이 인식한 교사와의 친밀한 관계는 학습

자들의 자기조절학습능력과 정적인 관련성을 보이고 있으며 표준화 계수에 있어서도 부모의 양육태도보다 더 높은 관련성을 보이고 있다. 교사는 주로 학업과 관련된 상황에서 자기조절학습전략과 기술을 배울 수 있는 중요한 학습모델이며 학습상황에서 보이는 교사의 지지적인 태도가 학생의 자기조절학습능력의 증진과 깊은 관련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렇게 향상된 자기조절능력은 학생들의 학업적 측면에서 성취를 이끌어 간접적으로 학생들의 자아존중감의 향상과도 유의미한 관련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교사와의 긍정적인 관계가 청소년들의 자기조절학습능력을 정적으로 예측한 최진아[20]의 연구결과와 자존감 향상에 중요한 매개효과를 가진다고 본 신효정과 최현주[14]의 결과와 유사하다. 또한 교사의 태도는 학습습관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결과적으로 학생들의 자아존중감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무엇보다도 2년 전 경험했던 교사와의 관계가 2년이 흐른 이후 학생의 자기조절학습능력에, 그리고 이를 통하여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은 한 해 동안 맺어온 교사와의 관계도 그들의 학업과 자아존중감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본 연구 결과는 교육적으로 몇 가지 주요한 시사점을 던진다. 첫째, 민주적 양육태도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학생의 자기조절학습능력을 향상시키고 자아존중감을 고양시키는 데에는 학령기 이전부터, 학교 밖에서 지속되어 왔을 가정에서의 민주적 양육태도가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통제적이거나 무관심한 분위기 속에서 자란 학생들은 자신만의 자기조절학습능력을 익히고 자아존중감을 높이는 일이 그만큼 어렵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교사는 학생의 자기조절학습능력과 자아존중감을 증진시키기 위해 부모의 양육태도를 살피고 동시에 부모와 협력하여 학생들을 지도하여야 한다는 의미일 수도 있다. 부모 또한 자녀의 자기조절능력과 자아존중감이 일방적으로 단순히 더 많은 학습자원을 제공하는 것이 아닌 지지적이고 민주적 양육태도에서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교사와의 친밀한 관계와 교실환경은 학생들의

자아존중감에 직접적인 효과를 가지지는 못했다. 그러나 학생들의 자기조절학습능력 증진에 기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그리고 장기적으로 자아존중감의 향상에 기여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친밀한 관계는 학생들이 교사로부터 인정과 존중을 느끼며 편한 관계 속에서 상호 작용하는 관계를 말한다. 학업 상황 속에서 학생들이 이러한 인식 속에서 학업을 한다면 학생들은 교사의 교수방법을 자연스럽게 습득하고 보다 책임감있게 자기 조절학습전략을 개발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렇게 증진된 학습능력은 학업성취를 이끌고 학업성취는 간접적으로 학생들의 자아존중감까지 높이는 데에 기여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을 증진시키는데 있어 부모와의 관계 못지않게 교사와의 관계도 중요함을 밝히고 있다.

셋째, 교사와의 친밀한 관계 형성을 통하여 제고된 자기조절학습능력은 학생의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는 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부모의 양육태도가 오랜 기간 지속되어 왔던 것과 비교하여, 교사와의 관계는 1년이라는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 동안 이루어진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 2년 후 부모의 양육태도와 교사와의 관계의 영향이 동일한 정도로 지속되고 있음은, 단기간 동안의 교사와의 관계가 청소년기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 번 환기시킨다. 1년이라는 기간이지만 그 기간에 맺는 관계의 방식은 개별 학생의 자기조절학습능력을 향상시키고, 이를 통해 자아존중감을 높이는 데 영향을 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자기조절학습능력이 매개효과를 가짐으로써 부모 및 교사와의 관계가 인지적 영역인 자기조절학습 능력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정의적 영역인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것으로 나타났다.

위와 같은 연구의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보다 엄밀한 종단적인 매개효과를 살피기 위해 1년차와 3년차뿐만 아니라 2년차 정보를 활용할 필요가 있었다. 연구자가 연구 주제에 따라 직접 데이터를 수집한 것이 아니라 아동청소년패널(KCYPS)에서 제공되는 자료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패널자료가 가지는 한계로 인해 연구의도를 충분히 충족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 추후에 연구자에 의한 직접적인 종단 연구를 통해 이들

두 변인의 효과에 대한 연구가 보완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고 문헌

- [1] 김현주, 조혜영, “중학생의 자아존중감과 진로태도성숙도가 학습동기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제17권, 제5호, pp.201-221, 2017.
- [2] S. Harter, Developmental perspectives on the self-system. In E. M. Heatherington (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Social and personality development, New York: Wiley, Vol.4, 1983.
- [3] D. R. Shaffer, *Social and personality development*, Belmont, CA: Thomson/Wadsworth, 2005.
- [4] 정의중, “청소년기 자아존중감의 발달체적과 예측요인,” 한국청소년연구, 제18권, 제3호, pp.127-166, 2007.
- [5] 이형실, “부모의 양육행동과 청소년의 또래관계간 관련성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한국가정교육학회지, 제26권, 제4호, pp.75-83, 2014.
- [6] 조성희, 김희수, “초등 고학년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또래애착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제16권, 제5호, pp.355-376, 2016.
- [7] 이경아, 정현희, “스트레스, 자아존중감 및 교사와의 관계가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과 심리치료, 제11권, 제2호, pp.213-226, 1999.
- [11] 임영식, 김혜원, 설인자, 조아미, 한상철, *청소년 심리학*, 서울:교육과학사, 2006.
- [9] 임선아, “민주적 부모양육태도가 아동의 자기조절학습능력, 자아존중감, 학교적응에 미치는 구조모형 비교: 저소득층 아동과 비저소득층 아동, 교육심리연구,” 제27권, 제1호, pp.125-142, 2013.
- [10] 황동성, 박은혜, “다문화가정 아동이 지각하는

- 부모의 양육태도 및 사회적지지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제26권, 제4호, pp.123-145, 2010.
- [8] 임선희, 명재신,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양육태도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제23권, 제12호, pp.327-347, 2016.
- [12] 박성연, 이은경, “청소년기 자녀에 대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 구성요소의 타당성 연구: 분리불안 심리적 통제와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 아동학회지, 제30권, 제2호, pp.211-230, 2009.
- [13] 홍명숙, 이수영, “청소년의 또래관계와 교사와의 관계가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경영연구, 제4권, 제1호, pp.183-211, 2017.
- [14] 신호정, 최현주, “청소년 자아존중감 변화에 대한 건강, 부모의 애정적 양육태도, 교사-학생관계, 또래애착의 매개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제13권, 제1호, pp.31-54, 2016.
- [15] B. J. Zimmerman and A. Kitsantas, “Developmental phases in self-regulation: Shifting from process to outcome goal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Vol.89, pp.29-36, 1997.
- [17] A. Gonzalez, G. Greenwood, and J. WenHsu, “Undergraduate students’ goal orientations and their relationship to perceived parenting styles,” College Student Journal, Vol.35, No.2, pp.182-192, 2001.
- [18] 김영민, 임영식, “민주적 양육방식, 자아탄력성 및 현대전화의존과 자기주도학습능력의 구조모형 검증,” 한국청소년연구, 제23권, 제2호, pp.273-299, 2012.
- [19] 민정숙,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기주도 학습능력에 미치는 영향, 명지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2011.
- [20] 최진아, “부모양육태도, 또래애착 및 교사관계가 청소년의 자기조절학습에 미치는 영향,” 놀이치료연구, 제18권, 제1호, pp.1-13, 2014.
- [21] 김동일, 김명창, 남지은, 강은비, 오지원, 정정현, “부모양육태도와 고등학생의 학업미루기의 관계에서 자기조절학습전략의 매개효과 모형,” 아시아교육연구, 제14권, 제2호, pp.29-50, 2013.
- [22] 박지현, 서상완, 정지희, 이사사, 정성화,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기주도적 학습력과의 관계,”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제10권, 제1호, pp.107-126, 2010.
- [23] R. R. Pintrich and E. V. DeGroot, “Motivational and Self-Regulated Learning Components of Classroom Academic Performance,”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Vol.82, pp.33-40, 1990.
- [24] 김만권, 이기학, “자기조절학습전략 프로그램이 학업성취와 심리적 특성에 미치는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제15권, 제3호, pp.491-504, 2003.
- [16] 우수정, “부모의 바람직하지 않은 양육행동과 아동의 친구관계 및 자기조절학습능력이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생활과학회지, 제23권, 제5호, pp.759-771, 2014.
- [27] B. Eilam, M. Zeidner, and I. Aharon, “Student conscientiousness, self-regulated learning, and science achievement: An explorative field study,” Psychology in the Schools, Vol.46, No.5, pp.420-432, 2009.
- [25] 허묘연,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행동 척도개발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0.
- [26] 민병수, 학교생활적응과 자아개념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1991.
- [27] 양명희, 자기조절학습의 모형 탐색과 타당화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0.
- [28] 김세영, 중학생의 인터넷 중독 수준에 따른 인터넷 활용 유형, 자기통제력, 자기조절학습능력 및 학업성취도의 차이,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 [29] M. Rosenberg,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University Press,
Princeton, N.J, 1965.

- [30] 고려대학교 행동과학연구소, *심리척도 핸드북 II*, 서울: 학지사, 2001.
- [31] 홍세희,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의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제19권, 제1호, pp.161-177, 2000.

저 자 소 개

김 현 진(Hyunjin Kim)

정회원



- 2010년 8월 : 텍사스 주립대학교, 교육심리학과(철학박사)
- 2011년 1월 ~ 현재 : 서울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교수

<관심분야> : 교육심리, 학습상담, 자기조절학습